광야 연수비용은 걱정 마세요!

(출13:17~22)

17.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18.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19.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20. 그들이 숙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21.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은 특별히 고난주간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성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광야 연수비용은 걱정 마세요>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광야 연수비용은 걱정 마세요'
대기업에서는 신입 사원들이 천 명이고 이천 명이고 입사를 하게 되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씩 연수를 하게 됩니다. 연수 목적은 회사를 소개하고 설립자나 사업내용 같은 것을 알려주고, 성공적인 선배들이나 임원들이 강의도 하면서 기업이 운영하는 공장이나 사업장을 직접 견학하기도 하며 회사원으로서 무리 없이 회사 생활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대기업들은 특정한 장소에 자체 연수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비유적으로 같이 생각할 수 있는 항목이고, 또 그 회사에서 하는 연수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 회사에서 특별한 기준을 충족시킨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것도 비유적으로 묶일 수 있는 항목이 있는 것이고, 또 회사 연수는 특정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이 끝나면 정

식으로 회사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도 염두에 두면 본문을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질문을 하나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십니다. 요셉이 자기의 유골을 들고 애굽으로 나가라고 했던 유언을 이야기하며 몇 백 년 전에 약속되어진 그 땅이 목적지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즉, 요셉의 유언이 언급된 것은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이고, 500년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되어진 땅이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이집트의 동북쪽 지역인 나일 강의 하류인 삼각주 지역에 고센 땅이 있었고 출애굽을 출발한 라암셋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는 아프리카 대륙과 직사각형의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삼각형 모양으로 삐죽 튀어나온 시나이 반도가 있는데, 북부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곧바로 가면 일주일도 걸리지 않는데, 그 시나이 반도 북부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섯 나라의 도시 국가를 형성하고 동맹을 이루면서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하고 있었고 굉장히 호전적이었습니다. 지름길을 통해서 가려면 블레셋을 만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피해서 시나이 반도 남단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한 달 이상이 걸리게 됩니다. 4~5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한 달 이상 걸리는 남쪽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인데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에 블레셋은 상대도 안 될 정도인 거대한 대국이었던 애굽이 하나님이 퍼부으셨던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 초토화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싸움에 나설 수 있는 20세 이상 장정 60만 명은 손가락하나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애굽이 멸망되다시피 되고, 싸움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전쟁에서 전리품을 획득하듯이 애굽인들에게 금은보화를 받아서 출애굽을 했는데 블레셋이 무섭다는 것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왜 이러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야 블레셋을 감당하기가 어렵겠지요. 아직 군사조직이 정비되지도 않았고, 무기가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싸움을 해본 적이 없었고,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여호수아가 이끌며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도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강해졌기 때문에 정복이 가능했던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가나안 정복 때의 싸움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었는데 블레셋을 피해간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염려가 보여주는 것은, 할례와 유월절의 의미를 삶에서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 선민이고 교회이고 이스라엘인데,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요청을 수용했지만, 인격적으로는 할례를 받은 자들로서의 그 의미를 온전히 성취하고 유월절의 역사를 삶에서 일상화하기에는 인격적으로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광야 길로 끌어내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할례 받은 선민들로서 유월절의 역사를 삶에서 일상화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할례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내 몸에 할례의 징표가 있고, 그 징표는 눈에는 안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므로, 블레셋과 대치하면서 블레셋보다도 하나님께서 훨씬 더 가까이 계시고, 그 분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혀 알 수도 볼 수도 없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도 없지만, 나는 내 마음의 관심을 현재 가장 우선적으로 빼앗아가는 그 대상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바라보시고 더 가까이 계시므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것이 유월절의 역사이고, 유월절에서 장자가 의미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고 동시에 내 마음을 첫 번째로 빼앗아가는 것으로,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담 이후로 전해지는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장자를 죽이시는 재앙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마음속에서 초태생의 장자를 죽이는데, 그것이 현재 내 마음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빼앗아가는 것들을 상징하는데, 지금 블레셋과 마주친 것이 내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기 때문에 초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철기 문화로 만들어진 무기를 가진 다섯 나라의 동맹국과 대치하자니 겁이 나고, 노약자나 가족이 있고 가축과 모든 재산이 다 있는데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기억해서 내 앞에 블레셋보다도 더 가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므로, 내가 할 일은 블레셋에 마음을 빼앗겨서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마음에서 블레셋을 죽이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먼 길을 돌아가도록 이끄실 필요가 없었는데 신입사원들이라 지금 그게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회장님이신 이 회사에서 내가 뭘 해야 된다고 말은 들었지만 아직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은 신입사원들로서 연수기간을 갖기 위해서 광야로 끌어내신 것이고, 광야가 바로 연수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너무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것 아닌가? 할례의 의미와 유월절 역사의 의미를 논리적으로 적용하면 물론 블레셋을 마음에서 죽이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다. 그러나 실지로 우리나라를 이스라엘 오합지졸로 치고 이북이 블레셋처럼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북을 잊어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억지 아니겠느냐? 나이 많은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있고 가축들이 있는데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완전히 망하는데, 이 상황에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할례와 유월절의 의미를 실행하고 마음에서 블레셋을 죽이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논리적으로 적용하다보면 너무 비인간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대

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에 블레셋과의 관계에서 사울 왕이 블레셋과 대치합니다. 그 때에는 이스라엘도 군사적으로 싸울 만큼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골리앗이 앞에 나오자 벌벌 떱니다. 그것이 인간적이죠. 그래서 전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군이 아닌 골리앗 한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기가 죽고 마음에서 벌써 져버렸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이때에 목동 일을 하다가 형들의 도시락을 싸온 다윗이라는 아이가 등장합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팔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목동 일을 하던 아이였고, 목동 일을 하던 현장에서 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던 아이로, 사자가 양을 잡아 갈 때에는 그 무서운 동물 앞에서 키도 작은 17살 꼬마가, 부정적 의미에서의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초태생을 마음에서 죽여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셔서 사자와 곰을 쫓아가서 입을 찢고 양을 빼내도록 하셨고, 그 양 치던 자리에서 할례와 유월절의 의미를 생활화하던 다윗이 전쟁의 현장에서 칼을 쥐어 본 적도 없고 전법도 모르고, 사령관이 누군지도 모르고 군대의 편성도 모르고,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쩔쩔매고 있는 골리앗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으로서 내게 가까이 오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처럼, 골리앗에게는 당신을 드러내고 있지 않으시다는 것을 알았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할례 받지 않은 군대”라고 별명을 붙입니다.

할례의 의미를 기억해 내면서 늘 유월절의 역사를 살므로 첫 번째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대상들을 마음에서 죽이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때에 그런 다윗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삼상17:44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라고 하자 돌멩이 다섯 개와 물매를 돌리며 나가면서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직장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고 가정에서 일어나야 될 일로, 가정에서의 골리앗은 나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자식이 될 수 있고, 경제적 형편이 골리앗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 초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신자에게 부드럽게 대하겠답시고 “당신이 첫 번째 관심으로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해결이 됩니다.”라고 이런 거짓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께서는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첫 번째 문제에 대해 죽으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유월절의 의미로,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문제보다 더 가까이 와 계시면서 너를 바라보며 너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죽으면 그 문제는 하나님 손으

로 들어가고, 원하는 대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문제에 대해 죽는 것이라고 가르쳐야 한다고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는데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할례와 유월절 역사의 의미가 삶 속에서 생활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받아들여서 선민이 되었다면 일상화 할 수 있기 위한 인격으로의 변화를 위해서 연수과정(program)이 필요하기 때문에 광야로 데리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이런 프로그램을 생각해서 제자훈련이나 영성훈련이라고 하며 교회 안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다 없애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훈련시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훈련은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훈련해 나가시는데 부부관계, 가족관계, 직장문제가 다 프로그램입니다. 내가 선민으로서 할례와 유월절 역사의 의미를 생활화기를 결정하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모든 사회생활은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되어서 실제생활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실제 삶의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라면 아들과의 관계에서 아들이 마음을 빼앗아 갈 때에, 유월절 역사의 의미를 생각하며 마음에서 아들을 죽이고 아들보다 앞서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할례와 유월절 역사의 의미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한 뒤로는 다 광야 생활이고, 그 때에는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모든 관심사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모든 관심사에 대해 죽기위해서 살게 됩니다. 나는 여전히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에 살기 위해서는 먹을 것이 필요하고, 마실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하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타납니다.
이 연수기간 동안에 할례의 의미와 유월절 역사의 의미를 일상적인 삶의 실제 상황에서 생활화하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상징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으로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그 비용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전15:31절에서 말한 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고, 고후4:10절에서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는 고백처럼 할례와 유월절의 역사가 일상화 될 수 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으셨던 일들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할례와 유월절의 의미가 내 몸에서 실현될 수 있는 인격으로 변화하는 것이 주된 과정입니다.
연수원에 들어가면 하루 평균 취침시간이 3~4시간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너무 고되기 때문에 5분만 짬이 있어도 다 잠을 자는 것처럼, 내가 변화되는 과정 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마음에 고통이 있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 죽을 것 같고, 현실은 현실대로 안 돌아가고, 그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걱정조차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걱정이라도 실컷 하고 계획이라도 실컷 세웠는데 이제는 그것도 못하게 자꾸만 죽으라고 하는 이것이 광야기간인데 얼마 안가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벗어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옛날의 이스라엘과는 다르게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실제 생활을 가지고 할례와 유월절의 의미를 실행하지 않더라도,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이 두 의미를 충족시키면서도 쉬운 길이므로,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빼앗길 때마다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죽었다는 이 한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한 것이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 내 마음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의 동선을 따라서 하나님께 쉽게, 쉽게 드려지게 되는데도 광야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관심거리들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죽기 위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불 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죽기 위해서 살지만 마치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삶에 필요한 기본 요건들을 다 충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죽기 위해서 살고 있다면 자식문제, 건강문제, 경제문제 등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실 것이고, 어느 순간부터는 서서히 될 수도 있고 급격히 될 수도 있고 내 삶이 사명의 삶으로 점차적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사명의 삶은 내가 점점 이 세상에 대해서 바라는 것들이 없어지고, 이 세상에 대해 강렬하게 소원하던 것들이 별로 시답잖게 느껴지고 시큰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나만의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셨던 본래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소원이 생기기 시작할 것이고, 이제 가나안으로 진입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할례와 유월절의 의미를 자유자재로 일상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하기까지 광야라는 연수원이 필요합니다. 이곳에서 하는 일은 죽기 위해서 사는 것으로 때로는 인간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걱정될 때도 있겠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생각하면서 염려를 놓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을 향한 회사 운영 속에서 광야 연수비용은 다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먹고 입고 쓰고 가족에게 필요한 요건들은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날마다 죽는 연습만 하겠다고 회사와 가정에 뛰어들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연수비용을 걱정하지 말고 매진하자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기필코 할례와 유월절의 의미를 자유자재로 일상화할 수 있는 인격으로까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프로그램인 이 실제상황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죽기 위해 직장에 가고, 죽기 위해 가정에 뛰어들고, 죽기 위해 친구를 만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인간적으로 필요한 연수비용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다 준비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